런던올림픽 우승 위해 정진 또 정진

국가대표 불자선수들, '金' 메달 발원

2012년 임진년 '용의 해'는 스포츠계의 화려한 빅 이벤트들이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다. 2014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을 비롯해 해외파 스타들이 복귀한 프로야구전은 벌써부터 스포츠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7월 27일~8월 12일 지구촌 최대 축제인 '제30회 런던 올림픽'이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사상 최고 성적을 거둔 2008 베이징올림픽 때보다 더 많은 금메달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불자 스포츠 선수들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아직까지 종목에 따라 최종 대표선발전을 앞둔 선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는 유력한 금메달 후보이자 용띠 스타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이효정 선수와 혼합복식을 제패했던 이용대 선수는, 런던에서 정재성 선수와 남자복식으로 세계 정상을 노리고 있다.

이용대 선수는 불자인 부모님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자가 됐다. 이 선수는 평소 부모님이 주신 경전을 읽고, 찬불가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연습에 몰두한다. 2연속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이용대 선수는 "좋은 결과로 불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체조의 희망'으로 불리며 스포츠계의 새로운 기대주로 떠오른 양학선 선수 또한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해 10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체조 세계선수권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특히 최 선수의 가장 큰 라이벌로 꼽히는 프랑스 토마 부엘 선수가 최근 연습 도중 왼쪽 무릎 인대를 다쳐 양학선 선수의 활약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양학선 선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2012년 7~8월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글을 남겨 올림픽 출전에 대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양 선수는 태릉선수촌 법당에서 봉행하는 법회에 참가하며 신심을 다지고 신행활동을 이어왔다. 또 양학선 선수는 체육인불자연합회를 통해 미래의 국가대표가 될 꿈나무 선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펜싱의 여왕'으로 불리는 남현희 선수 또한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현희 선수는 평소 법정 스님의 '하루하루 어떤 법을 일으키는 게 누구인가'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시합에 나간다고 했다. 남현희 선수는 "부모님 역시 독실한 불자로 시합에 출전할 때마다 부상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신다"고 말했다. 남 선수는 "법정 스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기도 덕에 시합에서 큰 힘을 받는다"고 전했다.

얼마 전 사이클의 공효석 선수와 백년가약을 올린 남현희 선수는 올림픽출전을 위해 2세 계획도 미뤘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남현희 선수는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선수


남현희 선수


양학선 선수

양궁 한경희, 선수촌 모범 불자
부처님 가르침으로 자만심 극복
힘들 때마다 '관세음보살' 염송

체조계의 기대주 양학선
첫 금메달 걸고 올림픽 각오 다져
꿈나무 선수들에게 장학금 지원

레슬링 김현우, 대표 선발전에 집중
선수촌 법당에서 불심 키워
차세대 레슬링 대표주자로 기대

레슬링은 아직까지 최종 대표선발권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김민철 · 김현우 선수의 활약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우 선수는 올해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66kg급에서 동메달을, 레슬링 프레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민철 선수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아쉽게도 메달획득엔 실패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의 행보는 기대할만 하다. 이 두 선수 역시 신심이 돈독하다. 이들은 태릉선수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봉행되는 법회에 시간이 날 때 마다 참여하며 불심을 키워나가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 양궁에서 특히 많은 도움을 준다. 양궁 국가대표 한경희 선수는 선수촌에서 가장 모범 불자 선수로 소문나 있다. 한 선수는 양궁 팀 막내이지만 실력은 선배 선수들 못지않게 뛰어나다. 올해 프레올림픽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 선수는 최종 대표선발권을 앞두고 집중 훈련 중이다.

굵직한 대회에서 메달을 석권한 한경희 선수는 "힘이 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말하며 집중력 훈련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선수는 선수촌 법당에서 매주 진행되는 법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스님들이 해주는 법문을 새겨듣고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했다.

한경희 선수는 "어린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돼 선수생활을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 때가 많았다. 특히 남들보다 정상에 빨리 오르니 자만심이 생겨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효자종목인 양궁은 올림픽 출전보다 대표선발전이 훨씬 더 치열하다. 한 선수는 "앞으로 선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올림픽 출전이 허락 된다면, 꼭 좋은 성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글=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어린나이에 대표선수에 발탁됐다는 자만심을 극복하려고 '관세음보살'을 불렀다는 한경희 선수

"양궁이 바로 선禪이다"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
런던올림픽서 "금메달 4개 목표"

"이번 런던올림픽이 제 생에 마지막 올림픽 출전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 양궁은 그야말로 올림픽의 꽃이다. 양궁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서향순이 첫 금메달을 목에 건 후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매번 금메달을 따낸 효자종목이다.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사진)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올림픽까지 양궁 국가대표 선수들을 지도해 왔다.

장영술 감독은 "7월에 열린 이탈리아 토리노 세계선수권 대회의 결과를 두고 항간에서는 한국 양궁이 꺾였다고 걱정을 한다. 그래도 한국양궁은 여전한 세계 최고"라고 단언하며 대표 팀의 기록들을 공개했다.

양궁팀 금메달로 올림픽 선전할 것
선수들에게 마음 수행 강조
선수들과 함께 템플스테이 하고파

장 감독은 그간 많은 올림픽 출전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올림픽에서 일어날 법한 돌발 상황들을 선수들에게 훈련들 시키고 있다.

장 감독은 "양궁 팀은 런던올림픽 첫날인 7월 27일부터 예선 경기가 치러져 지금부터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장 감독은 "올림픽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양궁 팀의 경기가 시작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반드시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밝혔다.

장 감독은 이번 양궁팀 총감독을 맡으면서 남녀 개인전 및 단체전까지 금메달 4개를 목표로 잡고 있다. 지금까지 양궁팀은 매번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4개 모두를 획득한 적은 전무하다.

장 감독은 올림픽과 더불어 4월에 치러질 세계양궁월드컵 대회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마음수행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말했다.

장영술 감독은 "불교와 양궁은 많이 닮아 있다. 양궁은 굉장히 선(禪)적인 운동"이라며 "만약 기회가 되면 조용한 사찰에서 이뤄지는 템플스테이 등을 훈련에 접목시켜 보고 싶다.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수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장 감독은 "현재 많은 선수들이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훈련 중에 있다"며 "불자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佛紀 2556年 壬辰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진실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헛된 삶이 이끄는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모든 공포를 초월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호 국 사
주지 본묵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68번지
TEL 061)383-6200

대한불교조계종
성 거 사
범전 혜공 합장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유 유 암
주지 종오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대원기도대학
대원불교대학
대 원 정 사
주지 일화
기도하는 사람마다
꿈, 소망이 성취되는
한 번은 꼭 친견해야 할
세계 유일
부처님 화현 수기도량
■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27번지
TEL 062)571-6789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지 시각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동 232
TEL 062)652-4920